



1층은 원기둥과 전통 창살문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어 법당에 온 듯한 느낌을 준다. 정면(천으로 가려진 부분)에는 서산 마애삼존불을 본뜬 청동조형물이 설치된다.



사무실은 기능과 전통미를 함께 고려했다.



인공위성과 LAN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전산실.



중대 중요 문서를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무한보존서고.

新공간서 信나는 역사 창조

건축은 시대의 거울이자, 시대를 담는다고 했다. 지난 2002년 4월 첫 삽을 뜬 지 2년여 만에 모습을 드러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단순히 새 집을 지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거기에 불교의 새로운 역사가 자리 잡게 된다. 2004년 오늘, 이제 한국불교는 새 옷을 갈아입고 미래를 향한 힘찬 걸음을 내딛게 됐다. 1월 27일 입주가 시작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1월 15일 미리 둘러 보았다.

입주 시작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이번에 1차로 완공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은 대지 1,375평, 연면적 5,085평, 대지 694평에 지상 4층 지하 4층 규모다. 겉으로 보기엔 완전한 현대식 건물이지만 내부는 오히려 전통 한옥 양식에 가깝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의 특징은 단연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꼽을 수 있다. 외양은 현대식이지만 내부는 전통 한옥 양식을 차용했다. 여기에 불교적 조형미를 가미해 은은하고 온화한 분위기를 풍긴다.

우선 1층 입구에 들어서면 민홍림의 원기둥이 사방을 지탱하고 있고, 이 원기둥을 축으로 전통 창살문이 2·3층을 에워싸고 있어 마치 법당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천장에 수놓아진 연꽃무늬 장식은 은은한 멋을 더했으며, 엘리베이터에도 비현상을 수놓아 건물의 성격을 반영했다.

이 가운데 백미는 모든 출입객들을 맞게 될 '백제의 미소'로 불리는 마애삼존불상. 건물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정면으로 눈에 들어오도록 배치될 계획인 마애삼존불상은 가로 4.5m, 세로 3.6m 크기로, 서산마애삼존불의 모습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청동으로 조성됐지만 석재 재질의 느낌이 나도록 해 원형 그대로의 느낌을 갖도록 했다. 현재 조성 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이달 말이면 온화한 자태를 볼 수 있게 된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왼쪽에는 중앙기록관실과 도서실, 무한보존서고, 전산실이 위치해 있다. 무한보존서고는 2만권 규모의 종단 자료(교역, 포교, 종회 등 각종 문서를 보존할 수 있는 시설로, 향은 향승장



비현상 문양의 엘리베이터.

지하 4층·지상 4층 전통 한옥양식 지하 1층에 불교박물관·연말 완공

치와 특수 소방시설까지 갖췄다. 전산실은 유무선 LAN 시스템과 인공위성을 통해 종단의 행사를 전국에 생중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선보일 날을 기다리고 있다. 도서실은 일반에 개방되는데, 이곳에서는 종단 자료 이외에 각종 일반 간행물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행정공간으로 사용되는 2·3·4층의 사무실 내부 역시 창문을 전통 창살문으로 하는 등 전통미를 최대한 고려했다. 특히 총무원장 집무실이 위치하는 4층 복도는 자연채광이 되도록 설계돼 있으며, 회의실은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고풍스런 내부장

식으로 전통미를 살렸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중앙박물관이 나온다. 현재 기본설계가 완료돼 시공자 선정이 끝나고 대로 세 부 건물 작업에 돌입하게 되는 불교중앙박물관에는 지방 사찰에 산재한 여러 불교유물과 정부로부터 반환받은 불교유물 등이 전시된다. 역사문화기념관이 불교문화종합공간이자 시민문화공간으로서 기능하는데 중앙박물관이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박

포교·교육·행정 중심... '총본산 기능' 불교 승려는 문화벨트, '새명소' 기대

물관은 별관공사가 끝나는 올해 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지하 2층에는 식당과 행사기획단 및 출판사 등의 사무공간이 마련돼 있다. 아직 내장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다른 사무공간과 마찬가지로 전통미를 최대한 살리게 된다.

지하 3층에서는 불교중앙박물관의 기능을 보좌하면서 유물을 보관하게 될 수장고를 볼 수 있는데, 석재, 지류·목재류, 기타 등 유물 분류별로 마련돼 있다. 유물보존처리실도 따로 공간을 마련해놓았다.

지하 4층은 유한보존서고, 비밀서고 외에 체력단련실과 전기실 등 건물 전체를 통제하는 시설이 들어섰다. 유한보존서고는 10년간 보관 후 폐기하는 종단 자료를 보관하는 곳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역사문화기념관은 포교, 교육, 행정, 문화의 중심센터로서 불교의 대사회적 기능을 종합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다시 말해 불교문화중

합공간이자 한국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한데 묶는 '한국불교 총본산'으로서의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또한 조계종의 구 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새 청사 시대를 열게 된다는 의미도 있다. 이는 종단사태 등 오욕으로 점철된 현 총무원 청사의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아울러 행정기능에만 머물러 있던 데서 국민과 함께 하는 공간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를 갖는다.

여기에 국제회의장이 들어설 별관공사가 마무리되고 현재 조계사가 진행중인 우정총국과 연계한 공원화 작업이 완료되면 불교역사문화기념관은 인사동과 우정총국을 잇는 시민문화공간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글=한영우 기자 · 사진=박재환 기자



회의실은 최첨단 장비와 전통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일반인에게 개방되는 1층 도서관.



건물 전체의 동력을 제어하는 기계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오른쪽)과 2월중 해체될 현 총무원청사(왼쪽)

■ 현 총무원 청사 2월중 해체

1975년 조계사 대웅전 옆에 '불교중앙회관'이라는 간판을 달고 출범한 현 조계종 총무원 청사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차 완공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총무원이 이달 말까지 새청사(역사문화기념관)로 입주를 끝내면 2월 중순경 현 총무원 청사의 해체작업이 진행되면서, 그 자리에 국제회의장을 갖춘 역사문화기념관 별관이 들어선다.

종권다툼, '10·27 법난' 등 오욕현장 국제회의장 갖춘 별관 건립 예정

현 총무원 청사의 해체는 곧 불교의 새 출발을 의미한다. 현 총무원 청사는 30년 역사 동안 불교 분규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다. 지난 1994년과 1998년 종권을 둘러싼 폭력사태가 빚어졌을 당시의 현장이 바로 지금의 총무원 청사다. 총무원 청사를 무력 점거하고, 종권을 쟁탈하려는 '전투' 속에서 화재를 입는 등 민선창당이 됐고, 청사를 배경으로 한 폭력사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일반에 부정적 이미지로 각인됐다.

또 1980년에는 신군부에 의해 불교의 자주권이 침탈당하는 '10·27 법난'의 아픔을 겪기도 했으며, 크고 작은 점거사태에 시달려왔다.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 (02) 720-8489

<중국 4대 불산 성지순례>

1. 관음보살 도량 - 보타산 / 낙가산 5일 75만원
2. 지장보살 도량 - 구화산 / 황산 5일 79만원
3. 보현보살 도량 - 아미산 / 낙산대불 5일 79만원
4. 문수보살 도량 - 북경 / 오대산 / 운강석굴 69만원
5. 관음도량과 지장도량 순례 8일 125만원
- 구화산 / 황산 / 보타산 / 낙가산 / 상해 -

2,3월 특선 중국문화 탐방

- ▷ 태산 크루즈 + 역사탐방 7일 399,000원
- ▷ 상해 / 장가계 / 소주 6일 699,000원
- ▷ 북경 / 백두산 6일 799,000원

<국내 - 제주도 사찰순례>

1. 산사체험과 역사유적 답사 3일 21만원
 2. 마라도와 한라산 등반 3일 25만원
 3. 마라도와 우도팔경 3일 27만원
- 제주도 일정은 제주 4대 사찰순례가 포함 되었습니다.

삼보에 귀의 하옵고

당시는 중국과 제주도를 현지 직영

운영하는 전문 여행사로서

불자님을 위한 중국여행과 제주도 여행을

안내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50명 이상 단체는 별도의 일정(맞춤)과 가격을 드립니다!!!